

결핵관리의 어제와 오늘

홍영표/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

머릿말

결핵의 지나온 길은 우선 서구라파를 예로 해서 돌이켜 보면 산업혁명을 계기로 만연되었던 것이 사회경제조건에 따라 화학치료시대 이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다가 화학치료 시대에 들어와서 감소폭이 가속화되었고 이제 몇몇 나라는 21세기초에 결핵근절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한편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성인면역 억제바이러스 감염증의 증가로 지난 수년간에 결핵이 배가한 나라들이 있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총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억가량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고 2천만명이 치료를 받아야 할 활동성결핵을 앓고 있으며 매년 8백만명 가까운 새환자가 생겨나고 있고 3백만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다. 인류역사 이래 결핵환자의 실수는 현재 가장 많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직후의 혼란과 6.25동란으로 인하여 전국민에게 결핵감염이 만연되었었다. 동란직후에는 모든 조건

이 불량하여 손 쓸 여력이 없었으나 그후 1962년에 국가결핵관리체계를 수립해서 보건소를 통하여 전국을 망라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제1차 전국결핵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결핵실정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결핵실태

1965년의 제1차 결핵실태조사 결과 30세미만 인구의 44.5%가 결핵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다. 치료를 받아야 할 활동성환자는 5세이상 인구중 5.1%이었고 환자수는 124만명에 이르렀었다. 균양성환자는 0.94%로 22만 6천명으로 추정되었고 전염성이 강한 도말양성환자는 0.63%로 17만명으로 추계되었다. 그후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90년의 제6차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30세미만의 감염률은 27.3%이었고 5세이상 인구의 활동성 폐결핵환자는 1.8%로 72만7천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균양성환자는 0.24%로 9만5천명, 도말양성환자는 0.14%로 5만6천명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4만세기 동안의 결핵관리사업결과 결핵은



착실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의 통계에 의하면 고칠수 있는 결핵으로 인하여 아직도 매년 6천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예방사업

결핵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감염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에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결핵발병억제를 위한 비시지 접종사업이 있다. 비시지 접종결과는 조사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최근 서울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에서의 예방효과가 74%에 달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액체비시지를 자체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부족분은 수입품으로 충당하였었다. 1979년부터는 냉동건조비시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30여만 ml에 이르는 전소요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접종대

상자는 되도록 생후 1년 이내에 접종토록 권장하고 있다. 국민학교 1학년 어린이 이하의 연령군에게는 비시지접종반흔이 없으면 투베르쿨린피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접종하는 직접접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중 피부반응 음성인 어린이에 대해서 재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수를 보면 1962년에 167만여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하여 1968~70년에는 매년 거의 3백만의 어린이에게 접종하였고 1970년대 전반부에 매년 2백만 가량, 그후 점차 대상자가 감소되어 최근 수년간은 매년 130여만명을 접종하였다.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30세 미만에 대한 접종률은 1965년에 24.3%이었으나 1990년 조사에서는 8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세이하 어린이의 접종률이 1965년 6.1%이었던 것이 1990년 조사에서는 78.4%로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다.

선진국에서는 화학예방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앞으로 고려해

볼 문제가 된다.

환자발견사업

환자발견사업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해줌으로써 감염원을 차단케하는 첫번째 과정이 되기도 하고 환자 자신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핵관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된다. 이 사업은 능동적방법과 수동적방법의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전자는 보건기관 또는 요원이 직접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엑스선 이동 집단검진이 첫째방법이고 다음으로 기침나는 사람으로부터 객담을 수거하여 결핵균검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법은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거나와 효율이 수동적방법에 비하여 떨어진다. 수동적방법이란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찾아오게 해서 결핵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전자에 비해서 효율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환자발견사업의 주축이되고 있다.

엑스선 이동검진사업은 결핵협회에서 195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1956년에 4천여명, 1960년에는 37만명, 그후 점차 증가하여 1975년에는 100만명이 넘었고 최근 몇해 사이에는 매년 150만명 가량 검진하고 있다. 1990년의 예를 보면 2만4천명 가량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보건소를 통한 환자발견 객담조사 건수는 1971년에 100만건이 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0년에는 37만건을 검사하였고 만명 가까운 양성환자를 발견하였다. 한편 결핵협회에서는 결핵연구원 세균부가 중앙검사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각 시도

지부에 검사소를 설치하여 객담도말, 배양, 약제감수성검사, 그리고 동정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990년 총검사건수는 36만건 가까이 되었다.

환자 등록 치료

결핵예방법에는 결핵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소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간 신환발행수가 얼마나 되며 그중 균양성환자가 얼마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나라로서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그간 보건소 연간 등록 환자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4년에 4만5천여명이 등록했었고 1975년에 12만명이상, 1981년 10만명, 1988년부터 약간씩 감소하여 1990년에는 6만3천여명이 등록하여 치료 또는 관찰을 받았다.

초치료처방은 동란직후에는 균양성환자에 대해서 INH 단독 또는 INH를 포함하는 양제병합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1962년 이후부터는 균양성환자에게 INH, PAS, SM의 3제병용 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1979년에는 PAS를 EMB로 대체하였고 1980년부터는 균양성환자에게 INH, EMB, RMP 3제병용 9개월 치료를 한개 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서 1984년에는 전국을 망라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는 PZA를 첨가한 6개월 단기치료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국 보건소에서 최신 강력 단기 치료가 কে도에 올라 치료효율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었다.

1960년대에 총치료 중단율이 35%에 달

했던 것이 최근 단기치료에서는 15%대로 내려갔고 균음전율은 과거의 70%에서 96%로 향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소 초치료 실패자에 대한 재치료 환자수도 감소하였다. 재치료는 1977년부터 시작하였는데 1981년에 6천5백명으로 최고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1년에는 2천명 남짓으로 되었다.

이와같은 치료효율의 향상으로 내성환자의 수 및 비율도 감소하였다. 1965년의 실태조사시 총내성률은 55.2%이었는데 그후 치료실패환자의 축적으로 점차 증가하여 1980년 조사에서는 74.5%에 이르렀으나 1985년 58.6%, 1990년 54.3%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할 일

결핵유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발견사업을 더욱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핵환자의 절반이상이 결핵이 걸린줄 모르고 있으며, 따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적인 대국민 보건홍보를 통하여 근래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결핵경시풍조를 타파하며 결핵이 아직도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서 조기발견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자신고제도를 반드시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제국에서는 2030년대에 결핵근절에 가까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22세기초에나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일층의 노력으로 이목표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卍

제 5 회 세계금연의 날

- 직장에서의 금연 -



제 5회 세계금연의 날을 즈음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지난 6월 1일 서울역 광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가두캠페인 전개와 기념식 및 세미나가 프레스센터에서 보사부장관을 비롯한 400여명의 관계인사 및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연에 관계된 포스터, 소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고 TV화면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고 등장한 흡연탈렌트를 선정 발표하는가 하면 금연운동에 공로가 많은 7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금연현장 발표 등으로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이날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쳤다.